

 한국농어촌공사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3. 3. 6(월) 10:00	배포일시	2023. 3. 6(월) 10:00
담당부서	환경지질처 물순환지하수부	책임자	부장 박영규(061-338-5791)
		담당자	차장 백진희(061-338-5792)

농어촌공사, 『KRC 지하수 기술나눔센터』 운영

-기후 위기, 지하수지질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어촌을 만드는 전문기술 지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남부지방의 지속된 가뭄과 모내기철 전국 봄 가뭄에 대비하여 전국 204개 지자체와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하수·지질 분야에 ‘KRC 지하수 기술나눔센터’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공사는 지하수·지질 분야 전국 최대 규모의 인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7년 ‘지하수 기술지원단’을 발족한 이래로 지금까지 3만 5천여 건의 기술지원을 해왔고, 올해부터는 ‘KRC 지하수 기술 나눔센터’ 운영으로 인력 지원 규모를 171명에서 190명까지 확대와 본사, 농어촌연구원 및 전국 9개 지역본부에서 지하수와 지질 분야의 기술을 지원한다.

지하수 분야에서는 가뭄 대비 지하수 개발 및 지하수 시설물 점검을 지원하고 지질 분야에서는 저수지 안전 점검, 누수 지원 조사 등을 지원하며, 기술·법·제도 검토, 교육 등 지하수, 지질 분야의 전반적 기술지원 활동으로 농어촌지역 기후 재해에 대처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해 상습가뭄지역 용수원 확보를 위한 충남 서부 권역 지하 물 저장시설 사업 추진 기술지원, 농업용 공공관정 정비 기술지원, 태풍이나 장마 시 재해예방관리시스템(<https://www.eqms.or.kr>)을 활용한 저수지 제방 누수 모니터링, 장마 시 긴급 물리탐사반을 가동한 바 있다.

특히, 공사는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ICT기반 농어촌지하수관리시스템(<https://www.groundwater.or.kr>)을 활용한 지하수량, 수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하수 가뭄 정보 및 관정의 신규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규전 수자원관리이사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뭄과 폭우 등 이상기후의 강도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공사의 전문 인력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기후 재해의 선제적 대응으로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